

테마칼럼

공간과 생활

문화의 향기

디자인 세상

과학과 경영

시나리오로 미래를 관측하라



유정식

대다수의 경영자들은 불확실한 상황에 처할수록 정교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미래를 예측하려고 한다. 확실성을 보장 받으려는 인간의 본성 때문이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가 세계경제에 파장을 일으키고 유가와 원자재값이 크게 요동치는 등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날로 커져감에 따라 많은 기업들은 다가올 미래에 막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대다수의 경영자들은 불확실한 상황에 처할수록 정교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미래를 예측하려고 한다. 확실성을 보장 받으려는 인간의 본성 때문이다.

그러나 예측시스템이 제아무리 정교하더라도 '예측은 항상 틀린다'는 진리를 피할 수는 없다. 우리의 눈이 그 이유를 비유적으로 일깨운다. 인간의 눈은 빛과 형태를 민감하게 인식할 수 있는 매우 정교한 신체기관이지만, 눈의 모든 영역이 다 그렇지는 않다. 눈의 가운데 부분은 물체의 색과 세부 형태를 잘 인식하는 시력을 지녔지만 가까운 거리에 있는 물체에만 국한된 뿐이다.

반면 눈의 가장자리는 물체의 색과 형태를 제대로 감별하지 못하지만, 먼 곳에 있는 희미하고 분산된 빛에는 민감하게 반응한다. 운전할 때 앞을 주시하면서도 양 옆에서 끼어드는 사물의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눈이 영역별로 특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사진 기술은 고사하고 필름 사진기조차 없었던 과거에 천문학자들은 오로지 눈과 광학망원경을 통해 천체를 관측하고 기록해왔다. 그들은 주로 멀리 떨어진 성운과 혜성을 관측했는데, 그것들이 내는 빛이 매우 희미하기 때문에 잘 보려고 가운데로 초점을 모으면 시야에서 사라져 버리는 것이 문제였다.

앞에서 말한 눈의 특성 때문이다. 그들은 경험을 통해 보고자 하는 대상이 아닌 다른 곳을 바라보는 간접 관측법을 쓰면 눈의 가장자리 부분을 통해 그 별의 색깔과 형태를 감지할 수 있음을 알아냈다. 대상이 희미할수록 초점을 맞추려고 애쓰지 않아야 비로소 볼 수 있었다.

기업경영도 마찬가지다. 불확실하게 보이는 미래를 복잡한 수치를 써서 예측할수록 미래는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져 버린다. 예측은 눈의 가운데 부분처럼 1~2년의 가까운 미래는 잘 맞출지 몰라도 기업 흥망의 열쇠를 쥐고 있는 먼 미래를 올바르게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든다. 예측 기법의 대부분은 과거의 패턴을 미래에 투영하는 방식을 취하는데, 요즘과 같이 빠른 속도로 변하는 환경에서 과거와 미래가 구조적으로 동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양크로와트로 여행을 갔을 때, 필자는 아직 땅거미가 걷히지 않은 새벽 5시에 사원을 배경으로 떠오를 일출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윽고 붉은 해가 희미한 빛을 내며 조금씩 모습을 드러냈을 때 이제저저거나 기다리던 관광객들은 환호하며 일제히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여기서 플래시가 광광 터졌을 때 필자는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 일출을 찍겠다고 플래시를 터뜨려봤자 앞사람의 뒤통수만 찍고 하늘은 까맣게 타버릴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예측은 이와 같다. 플래시의 빛이 강하지만 멀리 가지 못하듯, 예측은 논리적으로 강력하지만 미래를 그려내는 데엔 힘을 못 쓴다.

불확실하고 불안하게 느껴지는 미래를 보다 잘 감지하려면, 과거의 천문학자들이 일부러 물체를 똑바로 보지 않는 간접 관측법을 사용했듯이 미래의 불확실성을 인정하고 다양한 가능성들을 탐색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런 관점의 경영기법을 '시나리오 플래닝'이라 한다. 불확실성을 기초로 의미 있는 시나리오들을 도출하고 시나리오별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전략 기법인 시나리오 플래닝은 요즘과 같이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시점에 비로소 국내 대기업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예측의 한계와 오류를 절감했기 때문이다.

1970년 후반, 로열더치셸이 단숨에 업계의 리더로 뛰어오른 이유는 시장을 잘 예측했기 때문이 아니라, 시나리오 플래닝을 통해 정유사가 가진 교섭력이 OPEC 설립을 기점으로 산유국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미리 전략을 수립했기 때문이다. 다른 정유사가 과거 데이터로 예측한 결과를 바탕으로 무조건 투자를 늘려갈 때 로열더치셸은 숨고르기를 하며 힘을 비축했다.

미래가 불확실할수록 불확실함을 인정하라. 예측이 아니라 시나리오로 미래의 가능성을 관측하라. 그것이 불안하게 반짝이는 희미한 미래를 보다 잘 관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인류추진센터 대표)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지자체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라

광주의 실업률이 3개월 연속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광주·전남지역 실업률이 집계된 7월 광주의 실업률은 4.5%로 전국 평균 3.1%를 크게 웃돌았다. 고물가에도 지역경제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고용 불안이 심화되고 있어 서민들의 생활이 걱정이다.

광주의 실업률 4.5%는 지난 2006년 4월 4.5%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부산(3.6%), 서울(3.8%), 인천(3.9%), 대전(4.0%) 등 다른 광역시의 실업률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광주의 비경제활동인구도 46만명으로 한 달 전보다 1천 명이나 늘어났다.

이명박 정부의 핵심 공약인 일자리 창출은 기대 이하이다. 지난달 신규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만3천 명 증가하는데 그쳐 지난 3월 이후 5개월 연속 20만명을 밑돌았다. 당초 35만 개 일자리 창출 목표는 물론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에서 수정한 20만개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다.

실업률이 오르면 서민의 고통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구직 포기자를 포함한 방통계청이 집계한 7월 광주의 실업률은 4.5%로 전국 평균 3.1%를 크게 웃돌았다. 고물가에도 지역경제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고용 불안이 심화되고 있어 서민들의 생활이 걱정이다.

경기 불황과 고물가 및 고금리의 여파로 서민경제는 무너지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뒤 은행빚을 갚지 못해 주택을 경매에 내놓는 서민들이 급증하고 있다. 물들어 지난달까지 광주·전남에서 경매에 부처진 아파트가 1천 700가구에 달할 정도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실업자가 늘어나고 서민경제가 붕괴되면 사회적 불안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 주어야 할 것이다. 기업도 일자리를 늘려 고통을 분담하기 바란다.

'반쪽' 산부인과 전남, 인구 늘릴 수 있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상반기 분만 실적을 분석한 결과 광주·전남 산부인과 병·의원 70%에 달한다고 한다. 산부인과 환자를 받지 않는 '반쪽' 산부인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는 65개 산부인과 병·의원 중 36곳(48.3%), 전남은 58곳 중 28곳(55.4%)이 단 1건의 분만 실적이 없었다.

구례, 신안 등 전남 8개 군은 산부인과 병원이 아예 없었다. 분만시설은 있어도 분만환자를 받지 않는 곳도 있다.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산모들은 병원을 곁에 두고 대도시로 나가 '원정 출산'을 해야 하거나 임신 때부터 '원정 진찰'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 정도면 산부인과에 아기 받기 기피가 도를 넘어 인명을 경시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분만 기피를 산부인과 의사와의 돈벌이 행태라고 비난할 수만도 없다. 분만 기피는 저출산과 저수자, 의료사고 등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현상이라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내 의료사고를 경험한 산부인과 병원은 70%에 달한다고 한다. 산부인과를 지원하는 남자 수련의도 거의 없어 분만을 도울 의사가 절대 부족하다. 1.26명의 초(超) 저출산율에 비상이 걸린 국가의 분만환경치고는 열악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전남의 환경은 더욱 심각하다. 지난 2002년 이후 매년 3만 명씩 줄 정도로 전국 최고의 인구 감소율을 보이고 있지만 산부인과조차 없는 지역이 넘쳐 있다. 분만시설 사각지대가 다름없다고 할 수 있다.

정부가 지자체는 산모들이 편하게 진료를 받고 분만할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들어야 한다. 출산장려금이나 장차금 지급만으로는 인구를 늘리는데 한계가 있다. 기초자치단체마다 최소한 1개 이상의 분만시설을 갖춰야 한다. 시설부자 부담이나 의료사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의료수거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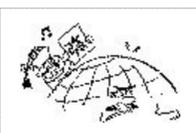
無等鼓

베이징올림픽 곳곳에서는 '중국식' 풍경이 눈에 띈다. 세계인의 잔치인 올림픽에 중국 냄새가 물씬난다. 지난 8일 개막식부터 예사롭지 않았다. '인해전술'을 원용한 개막공연은 황홀했다. 개막식에서 전 세계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여자 어린이의 노래가 가짜였다는 사실이 며칠 후에 밝혀지고, 가끔 컴퓨터 그래픽이 눈에 거슬렀지만 세계적인 이벤트로 손색없었다.

그러나 중국은 유감없이 '중국식 사고'를 발휘했다. 공인 도중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들을 서열대로 차례로 보여준 것은 바깥 사람들에게 생경하다는 지적이다. 중국은 중요 행사를 다루는 TV뉴스에서 정치국 상무위원들을 순서대로 소개한다. 따라서 올림픽 개막식도 '중국식' 의전의 연장선으로 보았을 때 옳다.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개막 오찬에서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악수하기 위해 30분을 기다려야 했다는 보도도. 부시도 다른 나라 원수들과 함께 줄을 서서 대기했다는 것이다. 사신이나 제후들이 응석했던 당(唐)의 황제를 배알하기 위해 줄지어 서있던 모습 이 오버랩된다. 올림픽 개최국이 자국의 발전 모습을 널리 알리려 세를 과시하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대한민국은 88서울올림픽을 치르고 나서 위상이 크게 높아졌다. 올림픽은 개최국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종합 이벤트이다. 중국이 베이징올림픽에서 강조하고 싶어하는 것이 '새로운 중화(中華)'라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올림픽 개최를 통해 21세기 중국이 '강한 성당'(強漢盛唐·강력한 한나라와 병성한 당나라)의 위용을 갖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중국식' 올림픽이 바깥 세상에 어떻게 투영될지는 받아들이는 입장에 따라 다르다. 중국이 유념해야 할 것은 스스로 강하다고 자부하는 것보다 상대국이 인정해주는 게 훨씬 더 큰 위력을 발휘한다는 사실이다. /박치경 체육·여론매체부장 unipark@

'중국식' 올림픽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시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의료 칼럼

우영종



여름철 불청객 모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은 모기 때문에 밤잠을 설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닐 것이다. 모기는 숙면을 방해할 뿐 아니라 전염병을 유발할 수도 있다. 최근에는 뇌염을 일으키는 작은 빨간 집모기 채집율이 높아져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가 발령되기도 했다. 건강하고 편안한 여름 나기를 위해서는 자기 전에 샤워를 해서 체온을 낮추는 등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모기는 푸른색, 검은색 등 진한 색 옷을 입은 사람을 좋아하므로 가급적 밝은 색 옷을 입는 것이 좋다.

집모기에 의해 사람의 혈액 내로 전파되면서 발생하는 급성 전염병이다. 사망률과 후유증도 많은 무서운 질환이다. 바이러스를 옮기는 빨간 집모기에 물렸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은 무증상으로 질환을 일으키지 않는다. 뇌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1~2주의 잠복기를 거쳐 고열, 두통, 경련, 혼수에 이르는 뇌염의 증상을 보이게 된다. 회복하는 경우에는 대개 증상이 일어난 한 주 뒤부터 열이 내리게 된다.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대개 발병 10일 이내에 사망하게 된다. 특히 어린이가 조심해야 하는데 특별한 치료법이 없어 감염된 어린이의 3분의 1이

기고

문병민



"흠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뱃님 어찌하리..." 위당 장빈보 선생은 광복절의 노래를 통해 광복의 기쁨을 이렇게 노래했다. 올해는 광복 63주년, 건국 6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다. 매년 8월이면 우리는 대한민국의 시련과 극복, 그리고 광복의 감격으로 이어지는 역사를 돌이켜 보게 된다. 광복절은 우리 역사상 가장 큰 감격과 환희를 가져다준 경축일임에는 틀림없지만 한편으로 치욕과 통탄의 세월을 떠올리게 한다. 전쟁과 폭력의 세기였던 20세

파라 언제든 자신들의 입장과 태도를 바꿀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때 조국 광복의 의미를 되새겨 보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큰 의미를 지닐 것이다. '역사에서 교훈을 찾지 못하는 민족은 생존할 수 없다'고 했다.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 치욕적이고 쓰라렸던 과거의 경험을 되새김으로써 과거보다 나은 현재,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몫이다. 과거 선열들이 초개같이 목숨을 바쳐 조국의 독립을 이루어냈던 것처럼 현재의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해

광복 제63주년을 맞아

기, 우리는 병엄한 국제정세 속에서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국권을 빼앗겨 더할 수 없는 시련을 감수해야 했다. 그러나 국권회복을 위해 독립운동이 활발히 일어났고, 이러한 애국선열들의 치열한 독립운동은 마침내 자주독립의 감격을 안겨주었다. 일제에 빼앗긴 주권을 되찾은 지 진감의 세월이 흘렀지만, 광복 63주년을 맞는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침략의 당사자인 일본 정부는 과거 일본 제국주의의 과오에 대한 사죄나 반성 은커녕 시마네현의 독도의 날 제정, 순시선 독도점진, 교과서를 통한 역사왜곡, 최근 독도 영유권문제에 이르기까지 온 국민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외교적 마찰을 초래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는 등 나날이 우익화의 길을 걷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등 강대국들은 이해관계에

야 할 일이며 일제에 억압받았던 암울했던 시기에 조국 독립의 의지를 불태우며 조국 광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순국선열들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선열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소중히 정신적 가치로 되새겨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역사적 사실과 의의를 정확히 알게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생각하는 올바른 국가관과 역사의식을 심어주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말아야겠다. 광복 63주년을 맞이하여 국가 존립의 위기에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 바쳐 나라를 지키고자 헌신했던 분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켜 국민의 시대정신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광복절이 민족정기를 굳게 세우고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설계하는 대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 <광주지방보훈청장>

일본 뇌염모기 경보

들째, 모기는 후각이 매우 예민하므로 외출 후 집에 돌아왔을 때에는 몸을 깨끗이 씻어 냄새를 없애고 향수나 화장품 사용은 피해야 한다. 셋째, 모기는 몸에서 나는 열에 민감하다. 자기 전에 샤워를 해서 체온을 낮추는 것도 모기의 공격을 덜 받는 방법이다. 넷째, 모기는 주로 논과 연못, 관개수로, 밭물 웅덩이 등에서 서식한다. 거주지 주변에 웅덩이가 있을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에 알려 방제하도록 한다. 다섯째, 모기에 물렸을 때는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은 후 얼음찜질로 혈액 순환을 억제하거나 알칼리성 용액인 묽은 암모니아수를 바르는 것이 좋다. 여섯째, 산행 등 야외 활동 시에는 긴 상·하의를 입어 모기로부터의 공격을 방어한다. 일본뇌염은 돼지나 야생조류에서 번식하는 일본뇌염 바이러스가 작은 빨간

상에서 합병증이 나타나며, 사망률도 높다. 일본뇌염의 발생지역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본, 중국, 대만 등 동아시아 지역으로, 시기는 7월 하순부터 10월 하순까지이고 8월과 9월에 집중된다. 보건복지부가족부에서는 일본 뇌염모기가 처음 발견된 '주요보'를 내리고, 매개 모기 내에서 일본뇌염 바이러스가 발견되거나 빨간 집모기의 밀도가 50%를 넘으면 '경보'를 발효한다. 최선의 예방책은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다. 모기는 새벽과 해질 무렵 활동이 가장 왕성하기 때문에 이 시간대의 야외활동을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좋다. 일본뇌염에 대한 예방접종은 생후 12~24개월 사이에서 1차 예방접종을 한 뒤 일주일에서 보름이 지나 2차 접종을 하고, 1년 후 3차 접종을 받아야 한다. 6세와 12세 때 추가접종을 하는 등 총 5회의 예방접종이 필요하다. <전남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가장 위험한 3대 직종 '농사'... 재해보험법 절실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업무상 재해를 대비해 의무적으로 보상을 받는다. 그러나 농민들은 개개인을 대상으로 한 노동재해보험법이 없기 때문에 농부별같은 장기적 집행을 얻어오 아무런 의료혜택이나 보상을 받지 못한다. 농업노동재해보험은 OECD 30개국 중에서 22개국이 실시하면서 농민들의 질병이나 농작업 중의 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선진국이라고 자부하는 우리 나라가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농업노동은 갈수록 농기계 의존도가 높고 사고 위험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또 농약이나 비료에 의한 사고, 평생동안 농작업을 해온 탓에 발생하는 근육·관절·신경 질환, 수해나 풍해·폭설·산불 피해 등 자연재해까지 견뎌내지 못하는 여러 가지 악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농업노동산업재해를 법으로 규정해 요양급여를 해줘야 하고, 장애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재활급여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다. <주정환·고흥군 도당음>

한우 흉수 출하 소값 폭락 부추겨

미국산 쇠고기 수입 여파로 인해 한우 농가들이 소값이 떨어질까 불안한 나머지 흉수 출하 하면서 한우값이 폭락하고 있다. 농민들의 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예전의 사례로 볼 때 흉수 출하는 자제하고 조금만 기다리면 한우는 일정기간 조정을 거쳐 다시 예전의 가격을 회복할 것으로 본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미 미국산뿐 아니라 호주산이나 캐나다산 등 수많은 쇠고기 수입에 대해 충분히 면역을 키워왔다. 소비자인 국민들 역시 외국산 고기와 한우의 명

백한 품질 차이를 알 뿐만 아니라 외국산 소고기에 대해 적응능력을 길렀었다. 이미 한우는 그 우수성과 안전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외국산 소고기를 거점으로 한 우라고 속여 파는 일만 정부가 제대로 막아 준다면 소비자들은 한우를 더 찾을 것이다. 한우 농가들이 지금까지 잘 해오고 곳곳이 버티어와 살아남았으므로 좀 더 냉정하게 조금만 기다려 보는 지혜를 발휘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학섭·광주시 광산구 양산동>

Table with 2 columns: 光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website details.